

종교가 반려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불교칼럼



서구 불자들이 결혼과 종교적 차이에 대해 '개종강요' 등의 부정적 견해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

일생의 반려를 만나지 못한 미혼남녀들 가운데 종교문제도 마음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체로 미혼남녀들은 불교 철학에 공감하는 상대를 찾는데, 이는 어느 종교에서든 마찬가지다. 불법을 모르고 자비실천을 따라하지 못할 상대와 산다는 건 불자로서 가능하면 피하고픈 일보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타종교에 병적인 배타성을 지닌 증세를 만나는 건 또 다른 번뇌의 시발일 수도 있다. 두뇌가 짝꿍하게 진공청소기 된 그들은 상대가 불자라면 마치 감전이나 된 듯 호들갑을 떨다. 하지만 여러 차례 직접 목격한 바, 그건 진실한 신앙심과는 무관하다. 그보다는 이해타산의 의도 등을 감추려는 선별적 위선이나 싸구려 신과극일 따름이다.

예를 들어, 미혼남녀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조건, 가족배경 등이 그럴싸한 경우, 그들은 종교문제에 대해선 아예 편견을 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이쯤 되면, 애뜻한 구애가 아니라 애처로운 구걸이다. 데이비트 결혼이든 이처럼 짝꿍하고 끈적대는 느낌이 든다면 깨끗이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 사랑이란 '아낌과 섬김'의 다른 이름이다. 사랑과 즐거움의 꽃송이가 아니라 미움과 불안감 등 독버섯을 키우는 악업은 불자의 몫이 아니다.

또한 종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호감동

과 왜곡된 선입견을 유발해선 안 된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떠돌았다. 미국 젊은이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를 가운데 우리 현실과 닮은 부분만 좀 풀라했다. 먼저 어느 처사님의 질문이다. "저는 불자인데 최근에 독실한 크리스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저는 다른 불자들처럼 열린 마음이고 그녀의 종교에 대해서도 100%의 존경심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그녀는 어떤지 모르겠군요. 이 교도끼리 살면 안 되나요? 도움 말씀 좀 주세요." 그러자 댓글들이 팔콘처럼 북북 튀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팍팍 밀어 붙이세요.' 이번엔 네티즌이 최다 선정된 글이다. '두 분이 서로 툭 터놓고 얘기를 나누세요. 제가 알기로 동양에도 불자와 크리스천 부부가 많다고 해요. 혹시 교회 결혼식을 원하시면 개종을 하시거나 신앙서적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즘엔 꼭 그렇진 않을 걸요.' 그러자 즉시 반격이다. '참 우습군요. 왜 불자가 개종을 해요? 모든 종교는 사랑을 가르치죠. 사랑이 있는 곳엔 상호배려와 희망도 늘 함께한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댓글도 있다. '그녀가 당신을 개종시키려하면 후박 해어주세요. 만일 그렇지 않은 여자라면, 당신은 꽤 괜찮은 크리스천을 만난 겁니다.' 또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는 글도 있다. '그녀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닫힌 마음보다는 불자인 당신처럼 열린 마음을

지냈겠죠. 얼마 전 헤어진 제 여자 친구는 마음이 탁 트인 힌두교도였죠. 참고로, 저는 크리스천 가정 출신인데 빈곤을 불자랍니다.' 그러자 하면 초보코퍼플레이어의 카운슬링처럼 자못 심각한 댓글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두루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종교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지녔는지,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어느 종교양식을 따를 건지, 만일 두 분이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면 어느 종교를 따르며 고프는지, 두 분이 결혼을 하면 잘 다뤄서 한번은 당신이 그녀와 교회에 함께 가고 그 다음 그녀가 당신을 따라 절에 간 걸지 등등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적절한 해답을 찾아보세요.'

댓글마다 땀맛은 다르지만, 어디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닮은 각설이타령은 안 나온다. 서구의 인터넷에는 미혼남녀간의 사귀거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성혼사례도 적잖다. 개인적 체험이라 한계가 있겠으나, 여태 만난 서구의 남녀노소 불자들 가운데 인종이나 문화 차별을 하는 도반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자들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봐요. 상대를 경계하지 않고 그속이 반겨 맞는 차분한 눈길 때문이죠." 배우 키아누 리브스 도반이 활영자 이탈리아에 갔을 때 초만인 이탈리아 불자를 공작 알아봤던 경험담이다.

때론 어느 충격적 경험이 지나온 삶을 전혀 새로 되돌아보게 한다. 이는 단순한 후회나 자기탄식을 뛰어넘는 치열한 자기반성인 동시에, 무명과 미망의 수렁 속에 갇힌 '참 나'를 건져내는 자아 재발견의 계기도 된다. 올리버 스톤은 다시 투입된 전투 중 다리와 등에 파편이 박히는 두 번째 중상으로 긴급후송이 된다.

다소 회복되어갈 즈음 그는 인간의 이율배반적 속성, 즉 '거부(拒否)하며 동화(同化)하는' 기이한 현상을 직접 체험한다. 누구든 어떤 대상에 대해 내내 곱지 못한 감정을 쌓아가다 어느덧 그 대상을 닮아간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에 대해 연민의 정을 지니고 마침내 긍정하고 수용하곤 한다. 이 과정은 나와 너, 옳고 그름, 싫고 좋음 등 가르고 나누는 분별심(分別心)을 거두고 모두가 하나임(oneness)을 깨우쳐가는 구도행과도 같다.

그는 지금껏 아버지를 가정파탄, 그리고 자신의 방황과 절망의 원인이라 단정하고 증오해왔다. 하지만 전신이 붕대에 들러 말려야 전병원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⑧

내면의 분노를 창의성으로 분출

심마리를 분둔다. '분노에 매달림은 나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옮겨줘야 하고 불에 데는 이는 곧 나 자신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분노는 왜 생겨나는가? 이제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 분노란 내 멋대로 가고 헤아리는 판단, 속단, 단정하는 나 자신에게서 비롯한다.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나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조금씩 풀어가다 보니, 그는 이전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같은 성인남자로서 이해하고 동지애마저 느끼게 된다. 마침내 그는 그간의 갈등과 방황을 펼쳐낼 불굴의 근성과 도전의식을 심어준 이도 아버지임을 뒤늦게 깨닫고 그 은공에 감사한다.

제1기갑연대에서 잔여복무를 마치고 1968년 귀국한 그는 전쟁의 악몽을 지우고자 공작 멕시코로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 2은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그를 아버지는 묵묵히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한다. 이제부터 스스로 행거야 할 '자각한' 그는 얼마 후 원호보 상 대상자로 뉴욕대학의 영화학교에 입학한다.

거기서 영화계 최초의 스승인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만나는 행운을 얻은 그는 후일 이렇게 술회한다.

"그분은 나의 축적된 분노를 창의성으로 바꿔 터뜨릴 돌파구를 열어주셨다." 그는 재학 중 두 편의 단편영화를 만든다. 그 하나는 '베트남에서 마지막 해'로 뉴욕 거리를 떠도는 참전군인의 고독감과 비애를 그린 것이며, 다른 하나인 '마더 앤 페리'는 폭력물로 당시 막 인기몰이를 하던 갱 영화의 집합이었던다.

스승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세계의 축소판 격인 이 작품들은 뜻밖의 감독 올리버 스톤 자신의 다양한 자화상이자 할리우드 진출을 앞둔 진지한 자기소개서라 하겠다. 그 이후 영화감독으로서 그의 걸출한 면모는 전문가에 의해 따로 소개되어지길 바란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보람이 불병대에 배속될 때까지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뒤이어 청동무공훈장을 받은 그는 장거리철보순찰대에 배치된다. 제대달일이 되어 좀 한가해진 그는 불교 책자들을 뒤적이다 뜻밖에도 그 해답의

분노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동지애로 변모

로 뉴욕대학의 영화학교에 입학한다.

스탠포드대에 불교후원금 보시

미국 스탠포드대학은 6월 24일 학보를 통해 홍콩의 자선재단법인인 로버트 호 가족기금(何鴻毅家族基金)이 동교 '불교연구센터'의 후원기금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보시했다고 보도했다.

동양문화의 발전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 기금은 특히 불교학연구 및 불교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한 국제적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문리대학장 리처드 셀러 교수가 이 기금이 교수진 및 학생의 연구지원, 외래교수 초빙, 커리큘럼 개발, 각종 학술행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 밝혔다. "독자기금의 후원으로 1997년 설립된 불교연구센터는 우리 스탠포드대학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학술단체입니다."

동교의 종교학과에 포함된 불교학대학원은 미국 내 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다.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Each from different school and country, two masters were invited for a dharma debate at a prestigious American university. Each in brown and grey habit, they sat together. The brown was fingering his japa mala and the grey ready to start. The grey used to hurl a flurry of question until his

Don't they have oranges where he comes from? 저 스님은 꾀도 없는 데서 오셨나요?

partner admit his ignorance and keep 'that don't-know mind'. Drawing out an orange, he asked, "What is this?" But the brown just sat still. "What is this?" Now holding it up to the brown's nose, he asked over again, "What is this?" Then the brown whispered to his translator who nodded. "My master just asks." He told the audience, "What is the matter with him? Don't they have oranges where he comes from?"

나리와 종파가 서로 다른 두 스님이 미국 명문 대학의 다라미토론에 초대됐다. 갈색 승복의 스님

은 염주를 굴리고 화색 승복의 스님은 토론을 준비했다. 화색 승복의 스님은 상대에게 줄곧 질문을 던져 결국 스스로 무지를 인정하고 그 모르는 마음을 재-도록 가르친다. 굴 한 개를 꺼낸 그가 갈색 승복의 스님에게 물었다. "이게 뭐죠?" 대답이 없자 다시 물었다. "이게 뭔가요?" 이번엔 굴을 코앞에 갖다 대고 물었다. "이것이 뭘-냐?" 마침내 갈색 승복의 스님이 통역에게 귤속말을 했다. "방금 저의 스님께서 이리 물으셨습니다. 저 스님 왜 재-시시시시? 저 스님은 꾀도 없는 데서 오셨-나요?"

번안: 성유 스님, 그림이테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산사로의 초대

백양사 참사람 템플수련회

참사람의 향기 "수행으로 가꾸는 삶"

허공 끝에 이를 때까지 갖가지 모든 충생계에도 그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때까지 제가 그들 삶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입보리행론]

▶ 백양사 참사람 수련회 일정 및 신청 안내

□ 수련일정:

구분	수행기간	참여인원
1차	7월 24일(목) ~ 27일(일) 3박 4일	60명
2차	7월 30일(수) ~ 3일(일) 4박 5일	60명
3차	8월 7일(목) ~ 10일(일) 3박 4일	60명
4차	8월 13일(수) ~ 17일(일) 4박 5일	60명

□ 접수기간: 2008년 4월 25일(금) ~ (정원 모집시 마감)

□ 참가인원: 각 차수별 60명 정원

□ 접수방법: 백양사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작성하시거나 참가신청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참가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오.

□ 참가비: 3박 4일 80,000원 / 4박 5일 100,000원

□ 문의전화: 061)392-7502 / 팩스 061)392-2081
www.baekyangsa.org

□ 입금방법: 농협 645117-51-014851 (예금주: 백양사)
우체국 501536-01-000205 (예금주: 백양사)

*참가 본인명의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입금확인 후 정식 등록이 됩니다.)

고 불 총림 백 양 사

2008년 노고산 흥국사 여름 수련회 안내

약사도량 흥국사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자연 풍광이 수려한 천년고찰에서의 산사체험은 수련생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이 될 것입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1차	7월 26일(토) ~ 7월 28일(월) (2박 3일)	초등학생	80명
2차	8월 2일(토) ~ 8월 4일(월) (2박 3일)	중·고등학생	40명
3차	8월 8일(금) ~ 8월 10일(일) (2박 3일)	일반인	40명

■ 장 소: 흥국사 설법전

■ 시 간: 당일 오후 2시

■ 준 비 물: 필기도구, 세면도구, 우산, 개인침구, 공양미, 수영복(초등학생 필히 지참)

■ 수련회비: 초등학생 30,000원 / 중·고등학생 40,000원 / 일반인 50,000원
T셔츠, 기념품, 기념사진 제공 *수련복은 배부릅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328-01-165185 (예금주 흥국사)

■ 접수안내: 흥국사 중무소 Tel 02)381-7970 / Fax 02)381-7329
홈페이지(www.heungguksa.or.kr)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지 대 오